

핀란드의 환경정책과 문화가 제주에 주는 시사점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진영

1. 템펠리아우키오 교회(Tempeliaukki Church)

1.1 템펠리아우키오 교회 개요

-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Helsinki) 도심 템펠리아우키오(Tempeliaukki) 광장 근처에 있는 바위를 파서 만든 교회
 - 1969년에 세워진 현대의 건물로 티모(Timo)와 투오모 수오말라이넨(Tuomo Suomalainen) 형제의 작품
 - 도심에 있는 커다란 바위의 안을 파내고 천장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된 독특한 건물임
- 숲을 연상시키는 교회의 외형을 이루는 암석 벽은 극한의 기후와 충격에도 교회를 보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2 템펠리아우키오 교회 특징

- 템펠리아우키오 교회는 ‘암석 교회’로도 잘 알려져 있는 교회로서 핀란드 자연환경의 조화를 잘 보여주는 건축물로 내부 좌석도 제단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배치하였으며, 암석을 파내어 내부를 만들면서 자연 상태 그대로 남겨 두었던 암석 일부가 교회 건축 내부를 장식하고 있음
- 실내의 의자는 최대한 단순하게 제작됐고, 불규칙한 돌 표면의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이도록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식도 모두 생략함
- 교회의 내부 벽에서는 이끼가 자라고 있어 생명이 느껴지고, 이끼는 그 자리에 영원히 있었던 것처럼 보이며, 교회는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임

2 viikki-vanhankaupunginlahti luonnonsuojelualue

2.1 viikki-vanhankaupunginlahti 개요

- Vanhankaupunginselkä, Vanhankaupunginlahti(스웨덴어 : Gammelstadsfjärden)라고 불리는 만으로 Viikki지역의 일부와 핀란드의 남쪽 부분에 있는 헬싱키 시내 근처의 자연보호구역임
- 본 지역은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 조류의 보호 관찰을 위한 중요한 습지임



2.2 viikki-vanhankaupunginlahti 특징

- 본 습지는 지도나 위성사진에서 보면, 육지 또는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큰 습지(늪)로써, 도보나 보트를 통해서 건너거나 통과할 수 없음
 - 습지의 대부분 지역은 사람크기의 갈대가 덮여 있으며, 갈대 아래의 땅은 부드럽고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움
- 그러나 헬싱키와 갈대밭 사이를 도보 또는 관찰을 위하여 데크(duckboard : 길처럼 깔아 놓은 널판자)를 설치함
- 본 습지의 관리에 있어서 대부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또한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보임
 - 예를 들어 자전거 거치대를 보면 나무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주변 동식물이 서식함에 있어 인간이 간섭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설 등이 돋보임

3. 헬싱키 주차정책과 벼룩시장 문화

- 헬싱키 시내를 걷는 인간을 위한 휴식공간의 마련과 더불어 도시 전체가 잘 정돈된 것 같은 인상을 줌
 - 헬싱키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또한 공원이나 가로수들이 잘 정돈되어 있음
 - 이러한 모습은 인간에 있어서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자체만으로도 도시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헬싱키 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주차와 관련된 표지판과 더불어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자주 눈에 보이며, 또한 베틀시장이 소규모 또는 대규모로 열리는 것이 관찰됨
- 우선적으로 시내 곳곳에서 보이는 주차시설과 관련하여 핀란드는 차량 과잉과 도로부족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등 지역적인 문제 차원에서부터 범지구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차에 대한 정액제 또는 쿠폰제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조사결과 헬싱키시내도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세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써, 교통규제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교통규제법은 월정액쿠폰을 구입하여 지정된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또는 일일 쿠폰발매기에서 쿠폰을 구입하여 주차료를 지불하는 방식임(※불법 주차시 벌금으로 약 60유로정도 내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헬싱키 시내에서 자주 보이는 베틀시장 또한 지역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사용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의 범위까지 고려할 수 있음
 - 헬싱키 광장, 올림픽홀 등 곳곳에서 수시로 베틀시장이 열리고 심지어 집 앞 공터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단, 1유로로도 근사한 빈티지 골동품을 건질 수 있음
- 베틀시장과 관련하여 핀란드에서는 “시보우스빠이바(Siivous Päivä/ Cleaning Day/ 청소의 날)” 행사가 이루어짐
 - 이 날은 하루 동안 헬싱키 시내 곳곳이 커다란 베틀시장으로 변모하여 더불어 도시에 활력을 가져왔는데, 시보우스빠이바는 “나에게 필요없는 물건이 누군가

에게는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벼룩 시장 행사로 시민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소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날임

- 이는 최근 2, 3년 사이 핀란드에서 급격히 늘어난 시민 자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많은 이들의 마음 속 잠재 수요를 건드려 성공적으로 호응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 옷이나 신발, 가구, 자전거, 공구, 장난감, 책, 식기 등 갖가지 생활 용품은 물론 수리, 수선 등 판매자의 기술 역시 팔 수 있는 점이 매우 독특함
- 시보우스빠이바 주최측은 판매를 원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고자 하는 지점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에 표시하고 또 팔고자 하는 물건의 항목도 역시 공개할 수 있게 하여 특정한 물건을 찾는 구매자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손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돕는 지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물건을 팔 수 있는 장소는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곳이나 허락받지 않은 사유지를 제외하고는 시내의 그 어떤 지역도 가능하며 지역의 이웃 주민들과 함께 신청하여 큰 규모의 시장 형태를 갖출 수도 있음



4. 제주에 주는 시사점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필요함
 - 핀란드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었다고 평가받는 템펠리아우키오 교회처럼 건물 또는 일정한 개발행위에 있어서는 제주지역의 주변 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헬싱키 내 주변 관광지로 알려진 습지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도

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찰이나 조사를 위한 시설 또한 서식하는 동식물에 피해가 가능한 적게 받도록 노력하는 모습으로 제주지역에서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권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제주지역의 경우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고지 증명제와 같은 제도를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많은 문제에 봉착해 사업추진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
- 그러나 주차와 관련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문제라고 판단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헬싱키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입안자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며, 투명한 주차문화는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세입의 확충도 기대할 수 있음

○ 자원재활용을 제고를 위한 벼룩시장 활성화가 필요함

- 제주시에서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13:00~17:00(8월, 12월 제외)에 근검절약 정신과 건전한 소비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동문로터리 분수대 일대에서 환경나눔장터를 개최하고 있으나 제주시 환경나눔장터는 중고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수거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제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나눔장터에 헬싱키에서 이루어지는 벼룩시장처럼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도에서는 벼룩시장(Recycle 또는 Reuse 스테이션) 공간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개최됨을 홍보하여야 함
- 또한 도에서는 벼룩시장(Recycle 또는 Reuse 스테이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재활용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재활용업체에서는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 자원을 가지고 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재활용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기준단가를 고려하여 구입)를 지불함으로써 Recycle 또는 Reuse 스테이

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더불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는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주지역에는 재활용센터가 설립·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제주지역 재활용을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재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공유 및 중고물품의 교환 장소로서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인간 중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 계획이 필요함
- 제주지역은 점차 고령화사회에 접근하고 있고, 또한 기후변화에 의해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이 점차 변해가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민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가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 계획이 필요함
 - 단적인 예로 도시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도시내 신선한 공기, 편안하고 안정된 교통 등이 도시 계획 범주 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시 계획 수립시 인간 중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계획은 결과적으로 제주지역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제주 관광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 제주의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됨